

서울·경기 지역 자유학기제 음악 프로그램의 실태 및 인식 조사*

조 슬 기** · 현 경 실***

본 연구는 서울·경기 지역 중학교를 대상으로 한 자유학기제 음악 프로그램의 실태와 이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학생과 교사의 인식을 조사하여 자유학기제의 음악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울·경기 지역 중학교 413개교를 대상으로 자유학기제 음악 프로그램에 대한 실태를 조사 하였으며, 2016년에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551명의 학생과 5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 및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413개교의 99.3%가 1학년 2학기에 자유학기제로 운영하였으며, 89.8%가 170시수를 자유학기제로 편성하였다. 조사 학생의 62.6%가 음악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있었다. 자유학기의 음악 프로그램의 선정은 학교의 지원 및 교사의 전문성, 학생의 흥미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학기제의 음악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학생의 흥미와 참여를 이끌어 주는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의 개발과 이를 위한 학교와 교사의 지원이 필요하다.

※ 주제어: 자유학기제, 음악 프로그램, 음악프로그램 실태, 자유학기제 인식

차 례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문제
3. 연구의 제한점

II. 이론적 배경

1. 자유학기제의 편성 및 운영
2. 자유학기제의 평가 방법

III. 연구 방법

IV. 연구결과 및 해석

V. 결론 및 제언

* 이 논문은 2017년도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논문임

**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 제1저자

***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교신저자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 지수는 UNICEF에서 조사한 29개국 가운데 가장 낮은 학업 스트레스 지수를 기록한 네덜란드(16.8%)의 세 배가 넘는 수치인 50.5%로 나타났다. 학교생활 만족도도 전체 평균보다 낮은 18.5%에 머물러 하위권에 속했으며, 삶에 대한 만족도도 60.3%로 해당 조사 대상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렀다(김미숙, 2015). 청소년의 약 60%는 사회·심리적 불안 요인으로 학업문제와(32.9%)와 미래의 진로문제(28.0%)를 들었다(이상영, 2016).

청소년 시기의 ‘교육’은 청소년의 적성을 탐색하고 미래를 설계하여 꿈을 실현하게 하는 도구이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입시위주의 교육과 주입식의 교육으로 경쟁을 강요받고 있다. 위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교육은 청소년들의 꿈을 실현하는 도구가 아닌 스트레스와 사회·심리적 불안을 야기하는 요인이 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9년에 창의적 체험 활동, 2012년에는 스포츠클럽 활동을 국가 교육 과정에 도입하였다. 또한 2013년 모든 시·도 교육청에 진로 체험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진로 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기도 하였다(서대원, 2015).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4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발표한 학교진로교육 실태 조사에 따르면 ‘중학생의 31.6%, 고등학생의 29.4%가 여전히 희망 직업이 없다’고 말했다(송창용, 2016). 이에 정부는 ‘자유학기제’를 도입하였다.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연구학교와 희망학교에 한해 자유학기제를 실시하였고, 2016년도부터 전국에 있는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었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토론·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수업을 개선하고, 진로 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다(자유학기제 지원센터, www.ggoomggi.go.kr). 음악교육은 학생의 참여와 경험을 중요시하는 자유학기제의 가치와 일맥상통하며, 음악교육을 통해 자유학기제가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다.

신철균, 황은희, 김은영(2015)의 연구와 백경숙(2016) 등의 연구에서 자유학기제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제언을 하였으며, 신지원(2016), 하남영(2016) 등의 연구

에서 자유학기제 음악프로그램의 운영 실태와 보완점 등을 밝히고 있다.

현재 전국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전면적으로 도입되어 운영되어 온지 1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다. 이 시점에서 지난 2016년에 이루어졌던 자유학기의 음악 교육은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실행되었으며, 이에 대한 교사와 학생들의 인식은 어떠한지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경기 지역 중학교를 대상으로 한 자유학기 음악 프로그램의 실태와 이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교사와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앞으로의 자유학기에서의 음악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경기 지역 중학교의 자유학기 운영학과 시수, 음악 프로그램의 종류는 어떠한가?

둘째, 서울·경기 지역 중학교의 자유학기 음악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의 인식은 어떠한가?

셋째, 서울·경기 지역 중학교의 자유학기 음악 프로그램에 대한 교사의 인식은 어떠한가?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경기 지역의 중학교 및 교사, 학생에게만 국한되어 조사하였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자유학기 음악 프로그램 실태 및 인식과는 다를 수 있으며, 전국적인 실태 및 인식으로 일반화하기 어려울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자유학기 음악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은 교사, 학생에게만 한정되었기 때문에 학부모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결과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자유학기제의 편성 및 운영

자유학기제 교육과정은 기본교과로 구성된 오전의 ‘교과수업’과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사 등을 고려한 오후의 ‘자유학기 활동’으로 편성하여 운영된다. ‘교과수업’은 토론, 실험·실습, 프로젝트 학습 등 전 과정에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자유학기 활동’은 ‘진로탐색 활동, 주제선택 활동, 예술·체육활동, 동아리 활동’ 이렇게 네 영역으로 구성되며 각 학교별로 학교의 여건과 학생의 관심사를 고려한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능동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 각 학교는 자율성을 가지고 학교 여건에 따라 교과(군)별 배당된 시간의 20% 범위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의 51시간 범위 내에서 각 활동을 170시간 이상 균형 있게 편성하여 운영한다(교육부, 2015, p. 11).

‘자유학기 활동’의 각 영역에 해당하는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자유학기 활동(자유학기제 지원센터, www.ggoomggi.go.kr)

영역	내용
진로탐색 활동	진로검사, 초청강연, 직업탐방, 일터체험 등 적성과 소질을 탐색하여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운영
주제선택 활동	헌법, 경제·금융, 고전 토론, 체험 수학, STEAM 과학 등 학생의 흥미와 관심사에 맞는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습동기를 유발 하고 깊이 있는 학습 기회 제공
예술·체육 활동	연극, 뮤지컬, 오케스트라, 디자인, 축구 등 다양하고 내실 있는 예술·체육 교육으로 학생의 소질과 잠재력 찾아줌
동아리 활동	문예토론, 과학실험, 천체 관측 등 학생들의 공통된 관심사를 기반으로 운영, 이를 통해 학생의 특기와 적성은 물론 자율적 문제 해결력 키워줌

2. 선행연구

자유학기제 운영 실태 연구는 신철균, 황은희. 김은영(2015)은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자유학기제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개선의 방향을

탐색하였다. 백경숙(2016)은 정부(교육부)가 주도하는 자유학기제가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수용되어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지방교육자치의 특색(혁신)교육과의 관련성으로 유형화하고 단위연구학교에서는 시·도교육청과 교육부의 운영방향이 어떻게 실행되어지는지를 살펴보았다.

다음은 자유학기제 음악 프로그램 실태를 연구한 것으로 신지원(2016), 하남영(2016)등이 있으며 연구·희망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음악교육현황을 조사하였다. 자유학기제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로는 박은미(2016)의 연구가 있다. 자유학기제에 대한 중학생, 교사, 학부모의 만족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위의 연구들은 학교 현장에서 자유학기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분석하여 2016년 전국적으로 시행된 자유학기제에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단계를 거쳐 2016년 전국적으로 시행된 자유학기제 음악교육 프로그램의 실태와 학생의 인식을 조사하여 앞으로의 자유학기제 음악프로그램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1) 자유학기 음악프로그램의 실태조사 대상

본 연구는 서울 지역 383개교, 경기 지역 620개교 총 1003개의 중학교 가운데 학교 홈페이지에서 자유학기 음악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가 확인 가능한 학교 413개교를 전부 조사하였다.

2) 자유학기 음악프로그램의 인식 조사 대상 - 학생

자유학기 음악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의 인식 조사는 지난 2016년에 자유학기 음악 프로그램을 경험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울 지역 2개교, 경기 지역 3개교 총 5개교에서 각각 4개 반씩 총 551명을 조사하였다.

<표 2> 연구 대상 - 중학생

지역	학교명	인원	계
서울	ㄱ중학교	101명	551명
	ㄴ중학교	100명	
경기	ㄷ중학교	117명	
	ㄹ중학교	116명	
	ㅁ중학교	117명	

3) 자유학기 음악프로그램의 인식 조사 대상 - 교사

자유학기 음악 프로그램에 대한 교사의 인식 조사는 서울 지역 2개교, 경기 지역 3개교 총 5개교에서 지난 2016년에 자유학기 음악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중학교 음악 교사 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 3> 연구 대상 - 음악교사

번호	연구 참여자	성별	전공	교직 경력	지역	학교명
1	A교사	여	성악	27년	서울	ㄱ중학교
2	B교사	여	성악	32년	서울	ㄴ중학교
3	C교사	남	관현악	8년	경기	ㄷ중학교
4	D교사	여	피아노	3년	경기	ㄹ중학교
5	E교사	여	작곡	10년	경기	ㅁ중학교

2. 연구 도구

1) 학교 알리미 및 각 연구대상 학교의 홈페이지

본 연구는 2016년을 기준으로 초·중등학교 정보공시제를 기반으로 하여 학교의 주요 정보들을 제공하는 학교 알리미(<http://www.schoolinfo.go.kr>) 사이트에서 자유학기제 운영학과 시수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였고, 연구 대상 학교 홈페이지에서 ‘가정통신문’에 게시된 자유학기 예술·체육활동의 음악 프로그램 안내 자료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종류를 구분하여 엑셀 파일로 정리하여 분석하였다.

2) 학생 설문지

자유학기 음악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의 인식과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지를 연구 도구로 활용하였다. 자유학기제 연구학교를 대상으로 한 선행논문(황지연, 2016)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자유학기제 만족도 평가 설문지를 참고하여 자유학기를 운영한 현직 중학교 교사 2인의 도움을 받아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작성하였다.

학생 설문지는 총 20문항으로 학생에 대한 일반적 사항을 묻는 문항 3개,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 2개, 자유학기 음악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 2개, 자유학기 음악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문항 12개, 자유학기 음악 프로그램에 대한 기타 의견을 기술하는 문항 1개로 구성되었다.

3) 교사 인터뷰

자유학기 음악 프로그램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인터뷰를 연구 도구로 활용하였다. 인터뷰 문항은 교육부의 자유학기제 정책 및 운영매뉴얼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교사 인터뷰는 총 11문항으로, 교사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묻는 문항 3개, 자유학기 음악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된 문항 4개, 자유학기 음악 프로그램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묻는 문항 4개로 구성되었다.

모든 인터뷰는 연구 대상자의 사전 동의하에 녹음 상태로 진행하였다.

3 연구 분석 방법

자유학기제에 대한 학생의 인식을 분석하기 위하여 5개교의 중학교 2학년 551명이 작성한 설문지를 Excel 2016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객관식 문항은 엑셀 파일로 코딩한 후 분석하였고, 주관식 문항은 응답된 내용을 유사한 유형으로 분류하여 정리 및 분석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해석

1. 서울·경기 지역 중학교 자유학기 음악 프로그램의 실태

1) 자유학기 운영학기

서울·경기 지역 연구 대상 중학교 413개교의 자유학기 운영학기를 살펴보면, 서울 지역의 3개교를 제외한 133개 중학교와 경기 지역 277개 중학교에서 자유학기를 1학년 2학기에 운영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표 4> 서울·경기 지역 자유학기 운영학기

운영학기	서울		경기	
	학교(개)	비율(%)	학교(개)	비율(%)
1학기	3	2.2	0	0.0
2학기	133	97.8	277	100.0
총계	136	100.0	277	100.0

2학년 1학기에 자유학기를 운영하는 학교는 없었기에 표에 포함하지 않음.

2) 자유학기 운영시수

자율과정은 각 중학교 여건에 따라 교과(군)별 배당된 시간의 20% 범위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의 51시간 범위 내에서 170시간 이상 편성되어 운영된다. 서울·경기 지역의 연구 대상 중학교 413개교 중 170시수로 자유학기를 운영하는 중학교는 89.8%로 나타났다.

<표 5> 서울·경기 지역 자유학기 운영시수

운영시수	서울		경기	
	학교(개)	비율(%)	학교(개)	비율(%)
170 시수	117	86.0	254	91.7
171~180 시수	6	4.4	8	2.9
181~190 시수	9	6.6	12	4.3
191~200 시수	1	0.7	1	0.4
200 시수 이상	3	2.2	2	0.7
총계	136	100.0	277	100.0

3) 자유학기 예술·체육 활동 시수

자유학기는 ‘진로탐색 활동, 주제선택 활동, 예술·체육 활동, 동아리 활동’ 이렇게 네 영역으로 구성된다. 예술, 체육 교과(군)는 ‘예술·체육활동’으로만 편성이 가능하며 음악 교과는 예술 교과(군)에 속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정의한 음악 프로그램은 ‘예술·체육 활동’으로 편성된 프로그램으로 국한한다.

<표 6> 서울·경기 지역 자유학기제 예술·체육활동 운영시수

예술·체육 활동 운영시수	서울		경기	
	학교(개)	비율(%)	학교(개)	비율(%)
17 시수	2	1.5	3	1.1
34 시수	21	15.4	74	26.7
45 시수	0	0.0	1	0.4
51 시수	64	47.1	95	34.3
53 시수	1	0.7	0	0.0
54 시수	0	0.0	1	0.4
66 시수	0	0.0	1	0.4
68 시수	44	32.4	90	32.5
85 시수	4	2.9	11	4.0
102 시수	0	0.0	1	0.4
총계	136	100.0	277	100.0

4) 음악 프로그램 수

지난 2016년 자유학기 ‘예술·체육 활동’ 영역의 학교별 음악 프로그램 수는 1개 부터 7개까지 다양하게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서울·경기 지역 모두 2개의 음악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운영하였다<표 7>.

<표 7> 서울·경기 지역의 자유학기 음악 프로그램 수

음악 프로그램(개)	서울		경기	
	학교(개)	비율(%)	학교(개)	비율(%)
1	34	25.0	106	38.3
2	58	42.6	100	36.1
3	28	20.6	44	15.9
4	13	9.6	17	6.1
5	2	1.5	7	2.5
6	0	0.0	1	0.4
7	1	0.7	2	0.7
총계	136	100.0	277	100.0
평균(개)	2.2		2.0	

5) 서울·경기 지역의 영역별 음악 프로그램

서울·경기 지역의 연구 대상 학교인 413개교를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자유학기 음악 프로그램을 ‘가창, 기악, 극음악, 감상, 이론, 창작, 그 외’의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그 외 영역에는 ‘가창·기악·극음악·감상·창작·이론 등이 혼합된 음악 활동’, ‘학급별 무대공연을 위한 프로젝트 수업’, ‘미술·체육·영어 등과 같은 타 교과와의 연계 활동’의 프로그램이 포함되었다.

<표 8> 서울·경기 지역의 영역별 음악 프로그램

음악 프로그램 영역	서울		경기	
	프로그램(개)	비율(%)	프로그램(개)	비율(%)
가창	41	13.5	49	8.7
기악	190	62.7	353	62.9
극음악	40	13.2	79	14.1
감상	9	3.0	24	4.3
이론	8	2.6	7	1.2
창작	13	4.3	19	3.4
그 외	2	0.7	30	5.3
총계	303	100.0	561	100.0

2. 자유학기 음악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의 인식

지난 2016년에 자유학기를 경험한 서울·경기 지역 중학교 2학년 551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 결과를 통해 자유학기 음악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학생에 대한 일반적 사항

서울·경기 지역의 연구 대상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음악 실력 수준은 ‘우수하다. 18.5%, 보통이다. 63.2%, 미흡하다. 18.3%’로 나타났다.

<표 9> 연구 대상의 일반적 사항 - 음악 실력 수준에 대한 인식

음악 실력 수준에 대한 인식	학생(명)	비율(%)
우수하다.	102	18.5
보통이다.	348	63.2
미흡하다.	101	18.3
총계	551	100.0

음악 프로그램 선택 여부는 서울·경기 지역의 연구 대상 학생 551명 중에 62.4%인 345명이 음악 프로그램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연구 대상의 일반적 사항 - 음악 프로그램 선택 여부

음악 프로그램 선택 여부	학생(명)	비율(%)
예	345	62.6
아니오	206	37.4
총계	551	100.0

음악 프로그램을 선택하지 않은 학생 206명 가운데 56.3%인 116명이 음악에 흥미가 없어서 음악 프로그램을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응답했다.

<표 11> 연구 대상의 일반적 사항 - 음악 프로그램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

음악 프로그램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		학생(명)	비율(%)
음악에 흥미가 없어서		116	56.3
부모님의 권유 때문에		2	1.0
친구의 영향 때문에		21	10.2
정원 초과로		17	8.3
기 타	다른 예술 교과인 미술 프로그램이 더 흥미로워 보여서	39	18.9
	악기를 잘 하지 못해서	3	1.5
	원하는 음악 프로그램이 없어서	4	1.9
	음악에 자신이 없어서	3	1.5
	담당 선생님의 수업 방식이 맞지 않아서	1	0.5
총계		206	100.0

2)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식

자유학기제의 실시 목적을 묻는 문항에 대해 22.3%의 학생들은 ‘보통이다’라고 응답했으며, 6.4%의 학생들은 ‘모르거나 전혀 모른다’라고 응답했다. 이는 대체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자유학기제의 실시 목적에 대해 이해하고 있지만 명확하게 잘 알지 못하는 학생들의 비율도 28.7%로 적지 않기 때문에 자유학기제에 대한 사전 교육이 더 필요해 보인다. 자유학기제의 취지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에 대해 학생들이 가장 많은 선택을 한 응답은 ‘진로 탐색(44.3%)’으로 나타났다.

<표 12>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식 - 자유학기제의 실시 목적 이해

자유학기제의 실시 목적 이해	학생(명)	비율(%)
잘 알고 있다.	124	22.5
알고 있다.	269	48.8
조금 알고 있다.	123	22.3
모른다.	28	5.1
잘 모른다.	7	1.3
총계	551	100.0

3) 자유학기 음악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자유학기 음악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부터는 본 연구의 연구 대상 학생 551명 가운데 음악 프로그램을 선택한 345명이 응답한 내용을 기초로 분석하였다.

자유학기 음악 프로그램의 시간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자유학기 음악 프로그램을 선택한 345명 가운데 74.8%인 258명이 자유학기 음악 프로그램 시간에 대해 ‘적당하다’라고 응답했다.

일반학과와 자유학기 음악수업의 차이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자유학기 음악 프로그램을 선택한 345명 가운데 일반학과와 자유학기 음악수업의 차이가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59.1%, 차이가 없다고 응답한 학생은 40.9%로 나타났다. 일반학과와 자유학기의 음악수업이 차이가 있다고 응답한 204명의 학생 가운데 64.2%가 차이의 이유를 ‘일반학기의 음악 수업에서 하지 않았던 다양한 활동을 한다.’ 라고 응답하였다.

자유학기 음악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경험한 345명 학생들의 전체 만족도평균

은 '3.35'로 자유학기 음악 프로그램에 대해 보통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3> 자유학기 음악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단위: 학생(명)/비율(%)>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계	평균
자유학기 음악활동을 위한 음악 관련 프로그램이나 동아리가 다양하였다.	9 (2.6%)	55 (15.9%)	152 (44.1%)	107 (31.0%)	22 (6.4%)	345 (100.0%)	3.23
자유학기 음악 프로그램 시간에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졌다.	5 (1.4%)	29 (8.4%)	142 (41.2%)	135 (39.1%)	34 (9.9%)	345 (100.0%)	3.48
자유학기 음악활동 평가를 통해 나에게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16 (4.6%)	59 (17.1%)	155 (44.9%)	90 (26.1%)	25 (7.2%)	345 (100.0%)	3.14
자유학기 음악활동은 흥미로웠다.	12 (3.5%)	35 (10.1%)	112 (32.5%)	125 (36.2%)	61 (17.7%)	345 (100.0%)	3.54
자유학기 음악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2 (0.6%)	23 (6.7%)	97 (28.1%)	146 (42.3%)	77 (22.3%)	345 (100.0%)	3.79
자유학기 음악활동을 통해 선생님과 관계가 좋아졌다.	13 (3.8%)	33 (9.6%)	156 (45.2%)	104 (30.1%)	39 (11.3%)	345 (100.0%)	3.36
자유학기 음악활동을 통해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아졌다.	11 (3.2%)	22 (6.4%)	140 (40.6%)	126 (36.5%)	46 (13.3%)	345 (100.0%)	3.50
자유학기 음악활동을 통해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30 (8.7%)	64 (18.6%)	145 (42.0%)	75 (21.7%)	31 (9.0%)	345 (100.0%)	3.04
자유학기 음악 활동을 통해 음악에 자신감이 생겼다.	26 (7.5%)	54 (15.7%)	152 (44.1%)	82 (23.8%)	31 (9.0%)	345 (100.0%)	3.11
자유학기 음악활동을 통해 학교생활이 즐거웠다.	16 (4.6%)	49 (14.2%)	144 (41.7%)	92 (26.7%)	44 (12.8%)	345 (100.0%)	3.29
자유학기 음악활동은 나의 꿈과 끼를 키우는데 도움이 되었다.	24 (7.0%)	62 (18.0%)	141 (40.9%)	83 (24.1%)	35 (10.1%)	345 (100.0%)	3.12
자유학기 음악활동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였다.	13 (3.8%)	15 (4.3%)	127 (36.8%)	125 (36.2%)	65 (18.8%)	345 (100.0%)	3.62
전체 만족도 평균							3.35

3. 자유학기 음악 프로그램에 대한 교사의 인식

지난 2016년에 자유학기 음악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서울 지역 중학교 음악 교사 2명과 경기 지역 중학교 음악 교사 3명, 총 5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인터뷰 질문 내용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음악 프로그램 개설의 방법

4명의 음악 교사는 공통적으로 음악 프로그램 개설을 위해 학교에서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희망 수요조사를 통해 프로그램을 개설한다고 답했다.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희망 수요조사가 자유학기 음악 프로그램 개설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다.

A교사 : 학생희망 수요조사와 교사간의 협의 등이 사용 되었습니다. 이 중 학생 희망 수요조사가 가장 크게 작용하였습니다.

2) 음악 프로그램을 위한 준비

5명의 음악 교사 모두 자유학기 음악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위해 수업 연구를 중점적으로 한다고 답했다. 그 외 외부강사와의 협력수업으로 함께 음악 프로그램을 준비하거나, 학교 내 TF팀을 통한 연수 및 컨설팅으로 음악 프로그램을 준비한다고 답했다.

D교사 : ...중략... 연수 이외에 자유학기제 TF팀을 구성하여 학교 내에 선생님들과 함께 수업 연구 및 컨설팅을 통해 자유학기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장점과 개선점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던 수업 컨설팅이 프로그램 개선에 있어서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3) 자유학기 음악 프로그램을 위한 외부 강사 채용에 대한 인식

5명의 교사 모두 음악 프로그램을 위한 외부 강사 채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했으며, 외부 강사 채용은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A교사 :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뮤지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 강사의 채용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B교사 : 외부 강사 채용으로, 프로그램의 전문성이 신장되며 프로그램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D교사 : 가장 좋은 방법은 학교 내에 상주하고 있는 음악 교사를 통해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것

이 좋지만, 학생들에게 더 큰 경험을 주기 위해서는 외부 강사를 채용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외부강사 채용은 교사 및 학생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4) 자유학기 평가 방법에 대한 인식

5명의 교사 중 4명의 교사는 자유학기 평가 방법에 대해 적합하다고 답했으며, 1명의 교사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평가 방식과 잘 혼합해서 평가해야 한다고 답했다.

평가 방법에 대한 인터뷰 결과, 음악 교과 특성상 학생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과정 중심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음악 교과의 지식 또한 중요하기에 이를 평가하는 지필 평가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D교사 :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악은 수학이나 국어, 사회 같은 인지적인 교과가 아니라 정서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교과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음악교과는 단편적인 평가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C교사 :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등급을 매기기에는 애매하고, 서술식으로 각 개인을 평가하기에는 표현방법에 한계가 있습니다. 기존방식의 평가와 서술식 평가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사용하면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5) 일반학과 자유학기의 음악교육 차이에 대한 인식

일반학과 자유학기의 음악교육 차이에 대한 인터뷰 결과 일반학기보다 자유학기 음악 프로그램에 있어서 학생들의 집중도와 흥미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음악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일반 학기와는 달리 자유학기에서는 한 주제를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으며, 학생들의 흥미에 따라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만큼 수업의 질과 집중도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고, 평가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 학생들이 좀 더 음악을 즐길 수 있게 한다.

A교사 : 자유학기에서 프로그램을 지정했다는 것은 음악 영역을 그만큼 심도 있게 가르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일반학과와는 달리 한 주제를 통해 학생들이 음악을 좀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D교사 : 일반 학기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수행평가나 시험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자유학기제는 시험에 대한 부담감 없이 학생들이 좀 더 음악을 즐기는 방향으로 교사 재량껏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E교사 : 모든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들어야 하는 일반학기의 음악 수업과는 달리 자유학기제의 음악 교육은 음악 및 해당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선택함으로써 수업의 집중력이 높아지고 수준도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6) 자유학기를 통한 학생의 변화

5명의 음악교사는 공통적으로 자유학기를 통해 학생들이 음악을 좀 더 즐기며 자신감을 갖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답했다. 그 외의 의견으로는 공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변화다. '사교육에서 배워야 했던 악기를 공교육에서도 배울 수 있다'라는 학생들의 인식 변화는 자유학기를 통해 공교육의 가치가 실현된 것을 알 수 있다.

C교사 : 일반학기의 음악 수업과 달리 자유학기에서의 음악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은 음악을 좀 더 즐기며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D교사 : 기존에는 학생들이 통기타나 다른 악기들은 사교육을 통해 배운다는 인식이 강했는데, 자유학기 음악 프로그램의 진행을 통해 '사교육 뿐 아니라 공교육만으로도 배우고 싶은 악기를 연주할 수 있다'라는 인식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7) 자유학기 음악 프로그램의 장점과 개선점

자유학기 음악 프로그램은 배워야 할 주제를 심도 있게 집중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개선점으로는 선택할 프로그램이 적어 어쩔 수 없이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자유학기의 취지를 살려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A교사 : 일반학기에서의 음악 교육은 전반적인 내용을 짧게 하여 진도를 나가는데 급급했지만 자유학기 음악 프로그램에서는 하나를 지정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C교사 : 본교 음악교사의 전문성으로 인해 타 학교에 비해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수업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개선점은 음악을 하고 싶지 않은 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음악을 듣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여건이 된다면 본인이 하고 싶은 프로그램만 들게 하여 자유학기제의 취지를 좀 더 살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8) 자유학기 음악 프로그램이 추구해야할 방향과 운영을 위한 제언

자유학기 음악 프로그램을 위해 앞으로의 방향과 제언을 묻는 교사 인터뷰 결과 좀 더 많은 전문적인 지원을 통해 음악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성 신장이 이루어져야 하며, 학부모·학생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연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 외, 자유학기의 취지가 일반학기에도 연계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C교사 : 좀 더 많은 음악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좀 더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 관련 연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정말 원하는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존 프로그램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D교사 : 교사와 더불어 학생과 학부모가 자유학기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학기제가 무엇인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시험을 단지 안본다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진 학부모님들도 있었습니다. ...중략... 자유학기제가 추구해야 할 방향과 취지, 운영방향, 목표에 대한 정보를 교사 뿐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서 사·도 교육청에서 자료나 연수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확하게 인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전문성 있는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의 개설을 위해 연수, 컨설팅 및 외부 강사에 대한 국가와 학교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교사 뿐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에게 자유학기에 의미와 목적 및 그 내용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학교에서는 음악 프로그램을 위한 완벽한 준비를 하고, 학부모 및 학생이 자유학기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을 때 더 효과적인 자유학기 활동이 이루어질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서울·경기 지역 중학교를 대상으로 한 자유학기 음악 프로그램의 실태와 이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학생들과 교사의 인식을 조사하여 앞으로의 자유학기제에서 음악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울·경기 지역 중학교 413개교를 대상으로 자유학기 음악 프로그램의 실태를 조사 하였으며, 2016년에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551명의 학생들과 5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 및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서울·경기 지역의 연구 대상 중학교 413개교의 자유학기 음악 프로그램 실태를 분석한 결과, 99.3%가 2학기에 자유학기를 운영하였으며, 89.8%가 170시수로 자유학기를 운영하였다. 평균적으로 2개의 음악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운영하였으며, ‘가창·기악·극음악·감상·이론·창작·그 외’의 영역 중 62.8%가 ‘기악’ 영역으로 음악 프로그램을 편성하였다.

둘째, 서울·경기 지역 중학교 2학년 551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 결과 62.6%가 음악 프로그램을 선택하였다. 음악 프로그램을 선택하지 않은 37.4%의 학생 중 56.3%가 음악에 흥미가 없어서 음악 프로그램을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학기 음악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35로 보통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셋째, 서울·경기 지역 중학교 5명의 음악교사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 결과, 대체적으로 자유학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학교별

로 자유학기를 위한 준비나 지원이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은 소속된 학교의 지원 정도에 따라 다른 조건의 음악 프로그램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부모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에 대한 사전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자유학기제에서 음악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학생의 흥미와 참여를 이끌어 주는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의 개발과 학교의 지원이 필요하다. 서울·경기 지역의 연구 대상 중학교 413개교는 평균적으로 자유학기 음악 프로그램을 2개로 편성하여 운영하였으며, 62.8%가 ‘기악’ 프로그램이었다. 음악 프로그램을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음악에 흥미가 없어서 음악 프로그램을 선택하지 않았다. 이는 학생들의 흥미를 이끄는 음악 프로그램과 학교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각 학교에서는 자유학기 음악 프로그램을 위한 장소, 물품 등에 대한 지원으로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다양하고 흥미로운 음악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교사들에게 연수, 컨설팅, 우수 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교사 또한 수업 연구 및 지속적인 연수 참여를 통해 음악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성 신장을 확보해야 한다. 전문 강사의 채용 또한 음악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이는 학생들이 자유학기 음악 프로그램에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도록 도울 것이다.

둘째, 자유학기제에 대한 정보를 학부모와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 제공해야 한다. 551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자유학기제 실시 목적의 이해에 대한 설문 결과 명확하게 잘 알지 못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28.7%로 적지 않게 나타났으며, 교사 인터뷰에도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는 학부모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자유학기제의 사전 교육 및 지속적인 연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학부모와 학생이 자유학기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인지를 하고 있어야 자유학기제 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 더 효과적인 시너지를 낼 것이다.

자유학기제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음악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교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학부모와 학생들의 관심과 정확한 이해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자유학기제에서 음악 교육이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의 개발로 발전되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부 (2015).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 계획(안)
- 김미숙 (2015). 한국아동의 주관적 웰빙수준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02월 통권 220호, pp.18-21.
- 백경숙 (2016). 시.도교육청의 자유학기제 운영유형 분석 : 시.도교육청의 운영방향과 연구학교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송창용 (2016). **2014년도 학교 진로교육 실태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p.101.
- 신지원 (2016). 2015년 서울형 자유학기제, 연구·희망학교를 대상으로 한 음악교육 현황 조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신철균, 황은희. 김은영 (2015). 자유학기제 운영 실태 분석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16(3), pp. 27-55.
- 양은주 (2015). 대중음악 작곡을 활용한 자유학기제 학생선택프로그램 개발, 음악교육연구, 44(4), 175-194.
- 이상영 (2016). 한국사회의 사회·심리적 불안의 원인과 대응방안, 보건복지 ISSUE & FOCUS, 04월 통권 304호, p.2.
- 하남영 (2016). 자유학기제 제 1차 연구학교를 중심으로 한 음악 프로그램 분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황지연 (2016).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에 따른 '체육활동' 운영실태 및 인식 분석, 중앙대학교 체육학과 석사학위 논문
- 서대원 (2015). 자유학기제 A부터 Z까지, 학생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준다!, 교육부 블로그, <http://blog.naver.com/moeblog/220401553242>, 2016,09,10.
- 자유학기제 지원센터. www.ggoomggi.go.kr

ABSTRACT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and
Recognition of Music Program for Free
Semester System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Cho Sulki · Hyun Kyungsi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actual situation of music program for the free semester system for middle schools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and the awareness of teachers and students who directly experienced it. The survey was administered to 413 schools, 551 students and 5 teachers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free semester system music program was influenced by the school program, teacher 's expertise, and student interest. In order for music education for free semester system to be effective, it is necessary to develop diverse music programs that would stimulate student's interest and involvement, and support schools and teachers.

Key words: free semester system, ,music program

투고일: 2017년 5월 31일, 심사(수정): 7월 17일(7월 24일), 게재확정일: 8월 1일